

韓 가계빚, 소득보다 증가 속도 빠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2018년 9월)'에 따르면 지난 2009~2016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자금순환 기준)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간 격차는 3.1%p로 OECD 평균치인 0.4%p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7.4%p), 벨기에(3.6%p), 룩셈부르크(3.5%p)에 이어 4위 수준이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 기준)도 올 2분기말 기준 84.8%로 지난해 말(83.8%)보다 1.0%p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1.1%로 치솟았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연간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

한국은행, 가계부채 OECD 국가 중 '4위' 부채·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 격차 3.1%p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84.8% 증가

비상 지출을 제외하고 소비,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소득이다.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1.6배 많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 2015년 말 142.9%에서 2016년 말 154.6%, 2017년 말 159.8%로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올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액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액을 더한 수치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할 경우 우리 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

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취약차주 부채 역시 크게 늘어났다 여기서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에 해당하는 차주를 말한다. 이들 대출 규모는 올 2분기말 기준 85조 4000억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모두에 해당하는 차주는 40만 5000명에 이룰 부채 규모도 12조 8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취약차주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부업 등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65.5%를

차지해 은행 비중(34.5%)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약차주의 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58.5%, 비은행 비중은 41.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에 대한 점유비중도 43.1%로 비취약차주(23.6%)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 대응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과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구성에서는 대체로 고소득(상위 30%)·고신용(1~3등급) 차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올 2분기 64.1%로 지난해 말(65.9%)보다 소폭 줄긴 했으나 여전히 높았다. 중소득(30~70%)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3.1%에서 24.6%로 높아졌다. 고신용 차주의 비중도 69.7%로 지난해 말보다 1.0%p 올라갔다.

뉴스스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27만3천원

전주보다 1.6%↓...전통시장, 대형마트비 8만6천원 저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으로 평균 27만30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전 주보다 1.0% 하락한 액수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27만3000원이었다.

이는 전국 19개 시·도 전통시장 18곳과 대형마트 27곳의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로, 전주(12일)의 27만500원보다 1.6% 떨어졌다.

전통시장이 0.4% 내린 23만원, 대형마트가 2.5% 떨어진 31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8만6000원 더 싼 셈이다.

김관영 aT 수급관리처장은 "과

일류 가격이 소폭 올랐는데도 채로 평균 27만30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전 주보다 1.0% 하락한 액수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27만3000원이었다.

aT는 배추·무 등 채소류를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1~2일 전을 피해 구입할 것을 권장한다.

사과·배는 품종의 집중 출하로 공급이 원활해지는 추석 6~8일 전에, 수산물물은 제수용 수요가 집중되기 전인 추석 5~7일 전에, 축산물물은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11~14일 전을 피해 4~8일 전 구입하면 더 저렴하다고 전했다.

뉴스스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8조 지급

국세청, 한기위 생활자금 도움되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 가구 중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79만원으로 지난해 78만원보다 1만원 올랐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입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176만원으로 지난해(63만원, 166만원)보다 높아졌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 1조 2808억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 규모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신청연령 40세에서 30세로 완화하고 지급액 인상(8~10%)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3만가구, 1398억원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90만가구, 4729억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5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699억원 감소했다. 이는 자녀양육 가구의 감소와 한 자녀가구 비중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79만가구(35.7%), 홑벌이 가구 118만가구(53.4%), 맞벌이 가구 24만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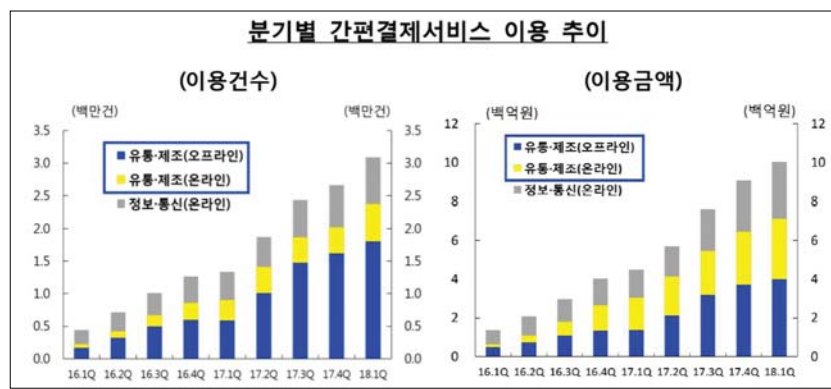
(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단독가구가 14만 가구 증가하고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비중이 감소했다.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이 더 많았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유형별로 근로소득자 139만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가구(37%)로 지난해보다 1.5%, 5.1%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자 중 상용근로자가 59만가구(42%)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일용근로자가 26만 8000명(38%)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자 중 사업장사업자가 38만가구(46%)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인적용역 사업자가 44만가구(54%)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과소 신청 장려금을 발굴해 추가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송금 2000억 돌파 '폭풍성장'

간편결제·송금서비스 이용금액이 2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8년 2/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495만 건, 이용금액은 20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5.9%, 18% 증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단말기 접촉이나 비밀번호 입력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실적은 전분기 대비 이용횟수 기준 26% 금액 기준 17.4% 증가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다.

전화번호, SN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서비스는 전분기 대비 이용횟수 25.5%, 이용건수 19% 증가했다. 토스 페이코 등이 잘 알려진 서비스다.

한은 관계자는 "간편결제서비스

가 유통·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자지급서비스 중 비중이 큰 전자지급결제대행(EG) 서비스 이용실적도 증가했다. EG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고 그 대가로 정산받는 서비스다. 일평균 이용실적은 808만건과 400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7.1%, 12% 증가했다.

교통카드 등 미리 금액을 충전한 뒤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실적은 1668만건, 1270억으로 각각 10%, 13.8% 증가했다. 개화 등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파트 관리비 등 고지서 대금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고지결제서비스는 전분기와 달리 겨울철 난방비가 줄어들며 감소했다. 이용실적은 15만건, 25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5.7%, 21.2% 감소했다.

농림부, 추석 성수품 가격 급등세 진정

"평년보다 여전히 비싸"

정부의 고강도 수급안정대책에 힘입어 추석 물가 급등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 추석 연휴 직전까지 10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 간 배추·패지고기·밤·사과 등 10대 성수품을 계획(10만 1524)보다 15% 초과한 11만6981t을 공급한 결과, 성수품 도매 가격이 대책 추진 전 3주간 평균 가격에 비해 7% 하락했다.

품목별 하락 폭은 배추 48%, 무 20%, 사과 58%, 닭고기 31%



등이다.

앞서 정부는 10개 성수품 공급량을 평년보다 대폭 늘리는 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품목별로 농산물 1.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1.6배, 수산물 1.7배 확대했다.

그러나 평년과 견주면 배추(포기당 3351원·-1%)를 제외하고 모두 가격이 뚝 떨어졌다.

이달 중순 무 도매가격이 개당 2162원으로 평년보다 76% 비싸다. 폭염 대책 과정에서 영농비상을 겪은 사과 도매가격은 8월 하순 10kg당 4만1875원에서 이달 중순 2만9246원으로 40% 하락했지만 평년보다는 2% 높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